

사랑하는 친구에게

배움의 後園



임효경 전 완도중 교장

명심아, 안녕? 어찌 이번 겨울은 이렇게 스산하고 어둡고 추울까? 아침 8시가 되어도 창밖은 희뿌연 안개 쌓인 듯 환해지지 않고, 무등산 자락 숲에 머물며 아침마다 울어주던 새소리도 없어. 저녁 7시만 되면 금방 사위는 어두워지고 흑시 바깥일을 보고 있더라도 갑자기 추위를 느끼며 어깨를 움츠리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우울한 날들이 어서 끝났으며 좋겠어. 어수선한 마음으로는 만나고 싶지 않아 미루어 두었던 우리의 만남도 가까이 다가오고 있겠지? 보고 싶다.

명심아, 잘 지내? 明心, 밝은 마음, BRIGHT HEART, 너의 그 이름처럼 주변을 밝고 환하게 해 주던 너를 떠올려봐. 아름다운 할머니 선생님이로 끝까지 남겠다던 너의 호기로운 목소리는 여전히 내 귓가에 떠도는 아름다운 선언 중 하나야. 그러나 너는 건강상 이유로 학교를 먼저 떠나야 했어. 아쉽고 안타까운 교육계의 손실이고 작별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 나도 너의 등을 떠밀 수밖에 없었어. 어서 내려가.

너는 부끄럽지 않은 선생님이 되고자 인간됨을 썼어. 아니, 멋진 선생님이었지. 우리가 40대 중견교사가 되어갈 때, 너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도 했었어. 이젠 학교에 있으면 무언가 가슴에서 외치는 명령이 있어. 무언가 해라. 선언보다 실행을 해라, 그러면서 너는 척박한 땅에 어린나무들을 키우는 심정이라고 했어. 잘만 키우면 저 나무들 중 어느 나무든 크게 자라서 가지를 뻗어 여름이면 얼마나 울창하게 이 땅을 덮어 줄 것이냐 했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여름날 그늘 밑에서 쉬을 얻겠느냐, 가을엔 그 열매로 배부를 것이냐, 겨울에도 희망을 갖겠느냐 했어. 겨울 그 맹추위 속에 의연하게 살아남아 봄이 되어 어린 초록 싹을 내미는 것을 보면, 아~~!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그래, 다시 시작하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 했어. 그 나무를 키우는 사람이라고 자랑스러워하던 너의 모습은 아름다운 투사 같았지. 가녀린 몸에서 뿜는 기운은 독립군을 이끄는 야전 사령관 같았어.

그러나 땅은 너무 척박했어. 주변은 또 얼마나 혼란스러웠던지. 많은 어린 나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눈앞에서 말라비틀어져 가고, 죽어갔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 달떠있는 너를 만나곤 했어. 의욕에 넘쳐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컴퓨터 불빛과 더 나은 교수학습 방법을 찾아 탐색하고, 도움이 될 만한 교육 관련 연수를 부지런히 찾아다녔지만, 문제는 우리가 아니라 그 땅이었지. 워낙 황폐했었지. 너는 더 말라갔고, 저러다 아프면 어쩌나 했지. 우려하던 일은 언제나 현실이 되는 걸까? 너의 마지막 쥐어뜯은 땀을 어느 나무에겐가 주고, 쓸쓸한 박수를 받으며, 너는 홀연히 그 땅을 떠나갔어.

내가 먼저 떠난 학교에 남은 나, 내가 가졌던 그 아름다운 교사로서의 선언을 마음에 새겼어. 그리고 내가 그리던 그 나무들의 성장을 기어코 보리라 다짐했어. 해마다 그들이 조금씩 가지를 더 뻗고 이파리를 내는 것을 도와줘야겠다고 힘을 냈어. 초록은 동색이라, 너를 친구로 둔 나, 그 밝은 마음을 내 가슴에 커두고 의지를 불태울 수 있었어. 사실, 교사로서 너의 선언을 내가 대신한다는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좀 더 기민하게 바른길로 가려고 애쓰지 않았을까? 그러나 나의 나 됨에 너의 나 됨이 얼마간 들어있어. 그래서 난 너를 존중하고 네가

나의 친구인 것이 자랑스러워. 부와 명예보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고귀한 성품이지.

명심아, 후회는 없지? 그때 조금이나마 남은 기운으로 인생 2막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벌써 5년째 자유로운 연(금)수(급)생(활자)으로 살아가니 어때? 아직도 꿈속에서 학교 교실을 헤매고 있어? 아직도 어두운 밤에 화상으로 호주어느 학교와 국제 교류 수업을 이끌다가 인터넷이 꺼져버리니, 깜짝 놀라 잠에서 깨는 것은 아니지? 사실, 5개월 차 신참자인 내가 그러고 있거든. 명심아, 너로부터 세계시민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온 세상을 더 밝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고 있을 미래는 우리의 환상만은 아닐 거야. 우리, 참 애썼어.

그래, 너도 알고 있겠지만, 애쓴 나를 위해 그동안 우리가 꿈꾸기만 했던 남미 5개국 여행을 먼저 다녀왔어.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교실에서 공부한 우리가 대학도 같이 다니고, 20대 청춘을 함께 보내며 늘 꿈꾸던 것이 세계 여행이었지. 우리 늙어도 같이 다니자고 약속하던 날도 기억이 생생해. 어렵고 힘들 거라고 하도 야단들이라, 내가 먼저 남편과 함께 떠났으니, 용서하렴. 상황, 시간, 그리고 체력이 받쳐주어야 가능한 달간 남미 여행이라 쉽지 않다고 너는 지금껏 미워 왔던 것을 알고 있어. 그래도 지금이 가장 젊을 때이니, 지금 떠나야 해. 고산병이 걱정이긴 하지만, 잘 준비하면 어려울 것 없더라고. 우리 여행 팀 중에 70대 어른 부부가 씩씩하게 잘 다니셨어. 명심아, 우리 아직 젊은 어른이더라. 너를 위한 상황, 시간을 만들고 바로 떠나길 바란다. 체력은 거기 가서 확인해 보면 돼. 우리 35년 넘게 학교라는 전장에서 야전 사령관이었잖아. 우리 얼마든지 해 낼 수 있어.

친구야, 가라. 떠나라. 더 넓고 아름답고 진기한 세상으로.

나눔으로 행복한 시간



김동수의 나눔톡톡

지난주까지 미국 LA는 산불로 도시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다. 불탄 지역은 마치 핵폭탄을 맞은 히로시마와 비견될 정도라고 한다. 근래에 코로나19부터 시작해 커다란 재난이 하루가 멀다고 국내외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전쟁까지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다. 그야말로 재난의 일상화다. 이럴 때마다 피해를 본 사람들을 돕기 위한 성금과 자원봉사자의 행렬은 줄을 잇고 있다. 이러한 나눔의 물결은 이들이 재기할 수 있는 복원력의 바탕으로 재난을 극복하는 힘이 되고 있다.

1863년 이탈리아 솔페리노에서 치열한 전투로 수만 명의 사상자가 있었다. 적십자의 창시자 앙리 뒤낭은 이를 외면할 수 없었다. 사업을 포기하고 마을 부녀자와 함께 부상자를 구호했다. 이를 바탕으로 평시에 훈련된 봉사자를 위한 구호단체가 필요함을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그 결과 적십자가 만들어졌고 이후 수억 명의 자원봉사자들을 양성하였으며 오늘날 지구 곳곳의 재난과 전쟁지역에서 나눔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뒤낭의 활동은 전 세계적으로 나눔을 돕는 본보기로 인도주의의 불씨가 되었다.

필자는 수년간 많은 기부자와 봉사자, 헌혈자를 만나왔다. 이들 중에 뒤낭과 같이 자신을 희생하고 나눔을 확산하는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많은 사람이 나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용기를 주고 싶었다.

이런 연유로 시작한 것이 '나눔으로 행복한 시간'이란 토크 프로그램 방송이다. 코로나19가 진정되던 2022년부터 3년간, 30명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분들을 만났다. 출연자들은 평범한 직장인, 공직자, 식당 및 업체 사장, 의사, 강사, 협회 대표 등으로 다양했다. 이 중에는 수억을 기부하거나 수만 시간을 봉사하고 수백 회를 헌혈하신 분들도 있었다. 대담 중에 '나에게 나눔이란?'이라는 공통질문이 있는데, 그 중 '나눔은 부채상환이다'라는 표현이 귀를 기울리게 했다. 이는 사회에서 받은 도움을 대출금처럼 갚아야 실천할 수 있다며 나눔의 의무감을 강조했다. 또 평생 구두수선을 하며 500회 헌혈을 달성한 사례는 부귀나 지위와 관계없이 나눔을 실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모든 분에게 나눔의 소감을 물으면, 이구동성으로 "오하려 (그들보다) 내가 더 기쁘고 행복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동기를 부여받고 싶다면 언제든 유튜브 '나눔으로 행복한 시간'을 시청하시면 된다.

고 이태석 신부도 남수단에서 아이들과 행복했던 이유를 "나눔을 받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는 기쁨입니다."라고 피력했다.

이처럼 여러분도 재난이 일상화된 세상에서 작은 나눔이라도 실천해서 기쁨이 있는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행복을 미루지 말자!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원장

2025년 달라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기고



설명진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장

어렵고 힘든 한 해가 지나고 2025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경직되고 움츠렸던 마음들이 하나둘 녹아내려 모든 국민의 가정에 행복하고 희망찬 기운이 내내 펼쳐지길 기대해 본다.

지난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1000만명을 넘어섰고 11월 국민연금 수급자는 700만명을 돌파하였다. 말 그대로 초고령사회가 도래하였으며, 노후 소득 보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앞으로도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올해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액이 2.3% 인상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국가에서 시행하는 연금제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

는 바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실질 가치를 보장한다는 점이다.

가령 2024년 12월에 50만원의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계셨던 분이라면 올 1월부터는 2.3%가 인상된 51만1500원을 수령하게 된다.

기초연금은 가구 유형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는데 2025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13만원에서 228만원으로, 부부가구의 경우 340만8000원에서 364만8000원으로 약 7%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그 수혜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112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70%),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또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하여 2024년 33만4810원에서 2025년 34만2510원으로 늘어나며 올해 기초 연금을 받는 약 736만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다양한 보험료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2025년 1월부터는 월 소득 270만원 미만의 근로소득자 중 230만원 이하자는 연금보험료의 80%, 230만원 초과 270만원 미만자는 16만5600원으로 정액 지원받게 된다.

다만 신규가입자의 경우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상용·일용근로자가 해당하며, 2018년 1월 이후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 이외에도 실업크레딧, 저소득 지역가입자, 가사 근로자,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보험료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언론·현장 홍보·미신청자에 대한 안내문·SMS 발송 등 다양한 접근 경로를 통해 신청 안내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고 | 황인 광주 북부소방서장



안전한 명절, 안전한 겨울나기

매년 겨울철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1년 중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때문에 소방관서에서는 겨울철이 되면 각종 소방안전대책 및 불조심 관련 행사를 마련해 시민들이 화재예방에 좀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 소방력을 동원해 총력전을 펼친다. 또한 최근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난방용품 사용과 각종 배터리 충전 중 발생한 전기화재도 심심치 않게 마주할 수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겨울에 특히 사용이 많은 전기제품들 몇 가지와 안전수칙을 소개하면, 대표적인 난방용품 중 하나인 전기장판은 라텍스 매트 위에서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사용하기 전에는 전선 파열 여부를 확인하고 주변에 이불이나 옷가지 등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 두지 말아야 하며, 계속 켜두고 생활하는 것은 좋지 않다.

또한 전기히터 사용 시에는 근처에 인화물질을 적재해서는 안 되며 과열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1~2시간 사용 후 10분씩 전원을 꺼주는 것이 좋고, 먼지도 화재의 원인이 되므로 주기적으로 청소해줘야 한다.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멀티콘센트는 문어발식 사용을 절대 금지하고 허용 전력의 80%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난방기기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할 때만 콘센트를 연

결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빼줘야 한다.

건조한 날씨 탓에 사용률이 높아지는 가습기는, 사용할 때 전원코드에 물이 닿지 않게 해야 하며 피복이 벗겨진 곳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다. 세척할 때는 분리해 전원케이블이 닿지 않도록 조심하며 세척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마다 명절이 되면 사회적으로 들뜬 분위기 속에서 화재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 우리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는 한다. 설 명절을 앞둔 지금 소방당국은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평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터미널이나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화재예방과 심폐소생술 알리기' 캠페인을 하는데 북부소방에서는 오는 24일 오후 홈플러스 동광주점에서 심폐소생술과 완강기 체험을 진행한다.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평소 화재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일상생활 속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백약이 무효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설이 될 수 있도록 화재와 안전사고의 위험요인은 없는지 내 주변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생활 속 안전수칙을 준수해 모두가 웃음 가득한 설 연휴를 보내기를 기원한다. 광주의 소방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평범하고 안전한 하루, 안전한 명절을 위해 오늘도 평범하지 않은 하루를 보내며 최선을 다할 것이다.



@jnlibo
진일보 인스타그램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게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b@jinilbo.com

